

2017년 신흥국 경제 전망

I. 아시아	3
II. 중남미	9
III. 중동·아프리카	15
IV. 동유럽·CIS	23

확인 : 팀 장 이해경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6255-6664)
oki1122@koreaexim.go.kr
선임조사역 박대원 (6255-5705)
parkdw@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고영애 (6255-5720)
kya321@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박종국 (6255-5704)
parkjk@koreaexim.go.kr
조 사 역 이정애 (6255-5708)
aeleej@koreaexim.go.kr
조 사 역 장은진 (6255-5716)
eunjin@koreaexim.go.kr
조 사 역 조재동 (6255-5708)
jjd8948@koreaexim.go.kr



세부 목차

I. 아시아	3
1. 지역 경제전망	3
2. 국가별 경제전망	5
가. 중국	5
나. 인도	6
다. 베트남	7
라. 인도네시아	8
II. 중남미	9
1. 지역 경제전망	9
2. 국가별 경제전망	11
가. 브라질	11
나. 멕시코	12
다. 아르헨티나	13
라. 콜롬비아	14
III. 중동·아프리카	15
1. 지역 경제전망	15
2. 국가별 경제전망	19
가. 사우디	19
나. 이란	20
다. UAE	21
라. 이집트	22
IV. 동유럽·CIS	23
1. 지역 경제전망	23
2. 국가별 경제전망	25
가. 터키	25
나. 폴란드	26
다. 러시아	27
라. 우즈베키스탄.....	28

I. 아시아¹⁾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지역	구분	2014	2015	2016 ^e		2017 ^f	
				IMF	ADB	IMF	ADB
동북 아시아	경제성장률	6.7	6.2	5.9	5.8	5.7	5.6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3	2.0	1.9	2.2	2.1
동남 아시아	경상수지/GDP	3.4	3.9	3.4	3.1	2.6	2.7
	경제성장률	4.7	4.7	4.8	4.5	5.1	4.6
남아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	4.4	3.4	2.6	2.0	3.5	3.0
	경상수지/GDP	2.9	3.3	2.9	3.4	2.4	2.7
남아시아	경제성장률	7.1	7.4	7.5	6.6	7.5	7.3
	소비자물가상승률	6.0	4.9	5.6	5.2	5.3	5.7
	경상수지/GDP	-1.1	-0.9	-1.3	-1.1	-1.9	-1.6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6.10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Update, 2016.9

□ 물가 안정세와 함께 6%대 초반의 성장세 시현 기대

- 2017년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6.3%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됨. 동북아시아는 민간소비 회복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수요 감소로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된 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y Community) 출범 이후 지역통합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내수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각각 5.1% 및 7.5%의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는 개혁정책 추진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남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이 7%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제조업 수출 확대, 내수 진작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OPEC 감산합의('16.12월)에 따른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 지속, 각국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다만, 남아시아는 자연재해에 따른 식품 가격 변동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5%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가 반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확대, 내수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는 대체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신흥국' 경제전망이므로 일본은 대상지역에서 제외

□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예상

- 중국의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경제성장률도 2013년 7.0%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 중임.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아시아 신흥국은 2016년 6.5%에 이어 2017년에도 6.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지향하여 과잉설비 축소를 통한 공급측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하여 6%대 초반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공무원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함께 모디 정부의 구조개혁 등으로 남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부문 수출·투자 확대 등으로 동남아시아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을 대신하여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물가수준은 전년에 이어 안정세 지속 기대

-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스리랑카, 네팔 등 일부 남아시아 국가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식품가격 상승으로 5%를 상회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제개편 노력과 함께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남아시아는 적자 지속

-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입 후 소비재를 가공·수출하는 형태인 산업생산 가치사슬(value chain)의 한계로 교역세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또한 이들 국가의 정책 불확실성, 유가 반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각각 2.6% 및 2.4%, 남아시아는 -1.9%로 2016년 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중 국

□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중속성장 체제 지속

-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연적 성장보다 내수·서비스 위주의 균형성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2017년에도 전년에 이어 정부의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노력을 통해 6%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ADB	IMF	ADB
경제성장률	7.3	6.9	6.6	6.6	6.2	6.4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4	2.1	2.0	2.3	2.2
경상수지/GDP	2.6	3.0	2.4	2.0	1.6	1.7

자료: IMF, ADB.

□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통해 6%대 초반 성장세 유지

-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와 함께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로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2%에서 2016년 6.6%로 크게 둔화됨. 2017년에는 외연적 성장보다는 산업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한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추진하여 6%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음. 특히 '안정 속의 발전'을 정책기조로 과잉설비 축소를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예상

- 경제성장세 둔화와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를 시현함. 2016~17년에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반등과 함께 식료품 가격도 소폭 회복되어 2%대의 물가상승률이 기대됨.
- 한편 경기부양 정책 추진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7%를 기록함. 아울러 2017년에도 전년에 이어 정부의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자 비중이 3%대로 확대될 예정임.

□ 경상수지 흑자 규모 및 외환보유액 지속 축소 전망

- 경상수지는 세계 교역량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를 기록 중이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2015년 이후 지속 축소되고 있음. 외환보유액은 3.2조 달러('16년 기준)로 세계 최대 규모이나 투자자본 유출 등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시현 중임.

나. 인도

□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으로 7%대 후반의 성장세 기대

- 상품서비스세 단일화 법안 통과('16.8월), 지체된 인프라 사업의 가속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로 2017년 중 7.6~7.8%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ADB	IMF	ADB
경제성장률	7.2	7.6	7.6	7.4	7.6	7.8
소비자물가상승률	5.9	4.9	5.5	5.4	5.2	5.8
경상수지/GDP	-1.3	-1.1	-1.4	-1.4	-2.0	-1.8

자료: IMF, ADB.

□ 경제개혁 정책 지속 강화 등에 힘입어 7%대 후반 성장세 기대

-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조세정책 불확실성 증대, 부정부패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됨. 그러나 2014년 모디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해 옴.
- 2016년 8월 상품서비스세*(GST) 단일화 법안('17.4월부터 18% 예상) 통과,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완화(유통업, 전기전자, 통신분야 전면 해제), 인프라개발 확대 등으로 2017년에는 7%대 후반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9개 주마다 다른 상품서비스세(16~27%)가 '17년부터 18%선으로 단일화될 예정으로, 상품 거래 및 소비시장 활성화와 이중 세금 부과, 뇌물 관행 등의 비효율 해소 기대

□ 물가상승률 5%대 유지 및 재정적자 소폭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농산물·연료 가격 상승, 루피화 약세 영향으로 2013년까지 1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힘입어 5%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프라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연료보조금 감소,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17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되나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 추진 및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와 소비 회복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외환보유액은 시장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3,7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베트남

□ 제조업 부문 중심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수출 증가,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2017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과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GDP 대비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는 주의가 필요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ADB	IMF	ADB
경제성장률	6.0	6.7	6.1	6.0	6.2	6.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0	2.7	3.7	5.0
경상수지/GDP	5.1	0.5	0.4	-0.2	0.1	0.0

자료: IMF, ADB.

□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확대 등으로 6.0~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도 전자산업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6.2~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로 상승,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소폭 감소

-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민간소비 증가, 임금상승률 확대에 따른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3.7~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2016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6.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간접세 징수 확대에 따른 정부세입 증가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동 비중은 6.0%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세 지속 예상

- 제조업 부문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류·신발 부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됨. 다만,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투자 수요가 높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라. 인도네시아

□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6~17년에는 정부지출 확대, 민간 소비 회복 등으로 5%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ADB	IMF	ADB
경제성장률	5.0	4.8	4.9	5.0	5.3	5.1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3.7	3.5	4.2	4.0
경상수지/GDP	-3.1	-2.1	-2.3	-2.3	-2.3	-2.4

자료: IMF, ADB.

□ 경제성장률은 2015년 저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회복 기대

- 주요 수출품인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4.8%를 기록함.
- 2016년에는 경기부양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5%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되나,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 예상

-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료보조금 삭감, 루피아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유지함. 그러나 2016년에는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3% 후반으로 안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내수 증가에 따라 4%대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연료보조금 삭감 등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 보건·교육 등 분야별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대의 적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자 지속

-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및 환율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전년 대비 1%p 하락한 -2.1%를 기록함.
- 2016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수출입의 동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2%대의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II. 중남미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CEPAL	IMF	EIU	CEPAL
			단위: %					
경제성장률	1.0	0.0	-0.6	-0.7	-1.1	1.6	1.7	1.3
소비자물가상승률	4.9	5.5	5.8	4.2
경상수지/GDP	-3.2	-3.6	-2.3	-2.1	..	-2.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EIU, Latin America economy: EIU's latest assumptions, 2016.12.
 CEPAL,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C, 2016.12.

□ 미국 신정부 출범, 美금리인상 등이 경제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17년 중남미 경제는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과 2016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이민정책 변화, 미국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중남미 제3위 경제국 **아르헨티나**도 2015년 정권교체 이후 시장친화적 경제 개혁 정책 추진 등으로 국제시장 신뢰를 회복 중이며 **플러스 성장이 전망**됨.
-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는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여 대외 위험 대응이 가능하다는 IMF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NAFTA 폐기 또는 재협상,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등을 공언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평화협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콜롬비아**는 산토스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치안개선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외환보유액 감소 및 경제침체 심화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남미 경상수지는 2017년에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등 원자재 가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전망됨.
-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자본유출 확대, 자국 통화가치 하락,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채원리금 증가는 중남미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 기대

- 2016년 저점을 통과한 중남미 경제는 2017년 원자재가격의 점진적 상승 및 미국 경제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남미 경제규모 제1위 브라질과 제3위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제2위 멕시코의 전년과 유사한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1%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브라질은 2015년 -3.8%, 2016년 -3.3%로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에는 0.5%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6년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2% 중반의 플러스 성장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지목된 멕시코는 2017년 2% 초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 공언했던 무역 및 이민정책의 현실화 정도 등에 따라 2% 미만으로 성장 하방리스크도 상존함.
- 태평양동맹 회원국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는 2~4%대의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페루는 광물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4%대의 경제성장 시현이 전망됨.
- 베네수엘라는 2016년 마이너스 -10%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한데 이어 2017년에도 -4%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 2016년 저유가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양호했던 중미 국가들(멕시코 제외)은 2017에도 미국의 경제성장세 지속, 관광업 호조 등에 힘입어 4%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TPP 폐기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쿠바와의 관계 개선 철회,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및 불법이민자 추방 입장 표명 및 美금리인상 등으로 멕시코, 쿠바 및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국가들은 GDP 대비 해외근로자 송금액 비중이 10% 내외 수준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일부 고인플레이션 국가 외에는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

- 생필품 부족,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화폐 발행 등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를 제외할 경우, 중남미 전체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5% 미만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하나 규모 축소 예상

- 중남미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16년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2015년 -3.6% 대비 축소된 -2.3%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2% 초반대가 예상된다.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브라질

□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전망되나, 경기위축 우려 상존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 등으로 경기위축 우려도 상존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CEPAL	IMF	CEPAL
경제성장률	0.1	-3.8	-3.3	-3.6	0.5	0.4
소비자물가상승률	6.3	9.0	9.0	8.5	5.4	..
경상수지/GDP	-4.3	-3.3	-0.8	..	-1.3	..

자료: IMF, CEPAL.

□ 정부의 경제개혁 기대감에 힘입어 2017년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 기대

- 브라질은 민간소비 위축, 수출 감소,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3%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 기대감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및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그러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침체를 벗어나려는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노선에 따른 대외거래 축소,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유출,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환율 상승 우려 등의 영향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상존함.

□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고물가 진정 예상

- 헤알화의 가파른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연료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9% 수준의 고물가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5%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 소폭 확대

- 2016년 수입감소에 따른 불황형 상품수지 흑자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0.8%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17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한 -1%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브라질은 2015년 기준 세계 9위 규모인 3,565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 (월평균수입 대비 14개월 수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

나. 멕시코

□ 트럼프 당선에 따라 정치·경제 불확실성 확대 전망

-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바, 멕시코 경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공언했던 무역 및 이민정책의 현실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CEPAL	IMF	CEPAL
경제성장률	2.2	2.5	2.1	2.0	2.3	1.9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7	2.8	3.0	3.3	..
경상수지/GDP	-2.0	-2.9	-2.7	..	-2.8	..

자료: IMF, CEPAL.

□ 2% 내외 수준의 저성장 지속 전망

-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 간 2% 초반의 저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2017년에도 NAFTA 폐기 또는 재협상,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등을 공언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멕시코 정치·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저성장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폐소화 가치 급락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 17일 기준금리 0.5%p 인상(4.75%→5.25%)을 추가 실시한 바 있으며, 2016년 4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폐소화 가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물가 안정세 유지 예상

- 물가는 저유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4%) 이내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3%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 지속중이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2% 후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17년에도 -2% 후반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이 예상되나, 멕시코의 FDI 유입규모(2015년 300억 달러) 등을 감안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멕시코는 세계 12위 규모의 외환보유고 보유(1,744억 달러) 및 IMF FCL* 승인(880억 달러, 2016년 5월)을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

*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크레딧라인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위기 예방 목적의 IMF의 금융수단

다. 아르헨티나

□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추진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 회복 전망

- 공공부문 보조금 삭감 등 마크리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추진, 2016년 상반기 국제신용평가 3개사의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국제신인도 개선 등에 힘입어 2017년에는 2%대의 경제 성장세 회복이 기대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CEPAL	IMF	CEPAL
경제성장률	-2.5	2.5	-1.8	-2.0	2.7	2.3
소비자물가상승률	38.1	26.5	41.0	42.4	23.2	..
경상수지/GDP	-1.4	-2.5	-2.3	..	-3.2	..

자료: IMF, CEPAL.

□ 적극적 경제정책 추진 등으로 플러스 성장세 전환 기대

- 아르헨티나는 2016년 원자재 가격 하락,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인접국 브라질 경제침체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의 신뢰 회복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대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될 예정임.
- 그러나 브라질과 동일하게 경제침체 탈피를 위해 무역확대를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는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이 경제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20%를 상회하는 고인플레이션 지속 예상

-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40%에 이르는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20%를 상회하는 고물가 지속이 전망됨.

□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도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6년 10월 OECD는 마크리 정부 출범 후 경제개혁 정책 실시, 국제신인도 향상, 경제규모 등을 고려, 아르헨티나 국가등급을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할 바 있음.
- 향후 마크리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른 투자 신뢰도 향상시 FDI 증가 및 외환보유액 확대 등으로 아르헨티나 외채상환능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콜롬비아

□ 정치안정 및 치안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지속 전망

- 산토스 (Santos) 정부의 안정적 정국운영이 유지되고 콜롬비아 정부와 좌익무장혁명군 (FARC)간 무력충돌 재개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치안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위축, 세제 개편 지연 등으로 2017년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CEPAL	IMF	CEPAL
경제성장률	4.4	3.1	2.2	2.0	2.7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9	5.0	7.6	7.3	4.1	..
경상수지/GDP	-5.1	-6.4	-5.2	..	-4.2	..

자료: IMF, CEPAL.

□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2%대의 저성장 지속 전망

- 2016년 민간소비 위축,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 투자 부진, 세제개편* 지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콜롬비아 경제성장률은 2.2%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2017년에도 2% 중반대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16%→19%) 및 과세대상자 확대 등 세제개혁을 추진중

□ 긴축 통화정책에 힘입어 물가 상승세 완화 예상

- 콜롬비아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6%를 기록하여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4%)를 크게 상회함.
- 그러나 엘니노 현상 완화로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고, 2016년 7월 7.75%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2017년 물가상승률은 4%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규모 축소 기대

-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 초반 수준으로 2015년 -6.4% 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콜롬비아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Fitch는 2016년 7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부정적 등급전망을 부여

-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폐소화 약세로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 등에 따른 수출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4%대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III. 중동 · 아프리카

1-1. 지역 경제전망 : 중동 · 북아프리카(MENA)²⁾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2.6	2.1	3.2	2.2	3.2	2.7
소비자물가상승률	6.8	6.1	6.0	6.9	6.2	8.1
경상수지/GDP	5.6	-4.4	-5.0	..	-2.8	..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6.10.
EIU, Global Forecasting Service.

□ 유가상승 기대와 이란 경제 회복 등으로 3%대 성장 전망

- 2017년 MENA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국제유가 상승폭과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 여부, 미 정부의 이란 핵협상 관련 재협상 추진 여부, 이라크 IS 사태와 리비아·시리아·예멘 내전의 진행상황 등임.
- 원유생산량 감축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기대, 이란 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MENA 전체의 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3.2%에 이를 전망이다.
 - 다만, 산유국들은 그간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의 여파로 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년(3.3%) 대비 하락한 2.9%를 기록할 전망이나, 향후 유가상승으로 성장률 개선이 기대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의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GC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 재정개혁 조치가 본격 추진될 계획임.
-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 경제의 성장은 2017년 MENA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 신정부가 이란 핵협상 관련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지역 안정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한편 이라크 IS 사태와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은 파리 테러 이후 서방 국가들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별·종파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기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예멘 내전도 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와 이란(시아파)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

2)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아랍어 사용 국가들(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을 지칭

□ 유가상승 기대, 이란 경제 회복 등의 긍정적 요소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 요인 공존

- 2016년 MENA 경제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들의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재정지출 기반 인프라 투자의 위축이 계속되었으나, 이란 경제재해제에 힘입어 전년(2.1%) 대비 상승한 3.2%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역내 불안정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기대, 이란 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과 동일한 3.2%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이란은 2016년 4.5%에 이어 2017년 4.1%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은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3%대 성장 예상)에 힘입어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6년 2.9%에서 2017년 4.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 대선 결과 핵협상에 반대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 신정부가 이란 핵협상 관련 재협상, 중동 정책 재검토 등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이라크·시리아·예멘 내전의 해결에도 차질을 빚어 지역 안정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도 있음.

□ 물가는 안정세가 전망되나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 MENA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 10.3%에서 2014년 6.8%로 하락한 데 이어 2015년 6.1%, 2016년 6.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물가상승률은 6%대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 MENA 지역은 2014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재정수입도 감소하여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7%의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5년 -9.3%, 2016년 -9.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역시 적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가 기대되어 GDP 대비 비중은 -6.4%로 개선될 전망이다.
 - GCC의 경우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9.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GCC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 도입, 각종 보조금 삭감, 추가 세원 확보 등의 재정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17년 GCC 회원국 전체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9%로 개선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MENA 지역 전체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인해 2016년 -5.0%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동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되겠지만,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과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그 비중은 -2.8%로 개선될 전망이다.

1-2. 지역 경제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³⁾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5.1	3.4	1.4	1.1	2.9	2.6
소비자물가상승률	6.3	7.0	11.3	10.6	10.8	10.0
경상수지/GDP	-3.7	-5.9	-4.5	..	-3.9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EIU, Global Forecasting Service.

□ 자원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의 고성장 지속으로 3%에 가까운 성장 기대

- 앙골라,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자원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원자재 국제수요 부진의 지속으로 1% 미만의 저성장에 그치는 반면 코트디부아르, 케냐, 탄자니아 등 자원수출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SSA 전체적으로는 2017년 3%에 가까운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로 야기된 SSA 국가들의 통화가치 약세는 2016년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본이탈과 맞물려 2017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10%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을 위한 금리정책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아울러 동 지역에서 반군 및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의한 치안 불안의 악화 등의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음.
- 대부분의 SSA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는 고용 창출과 포괄적 성장에 핵심적 요소이며,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증대, 투자환경 개선, 소득 재분배 강화 등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Sub-Saharan Africa: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 제외

□ 유가상승 기대로 SSA 산유국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전환 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SSA 산유국*의 경제는 저유가 지속으로 2016년 평균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상승 전망에 힘입어 평균 0.9%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역시 2016년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0.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전망이다.

*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수단, 가봉, 콩고공화국, 차드, 수단, 적도기니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대 유지, 재정수지는 적자 지속 전망

- 미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전력 부족 심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각종 보조금 폐지 등의 요인들이 겹쳐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7.0%) 대비 대폭 상승한 1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국 통화 약세로 인해 동 추세가 계속되어 1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SSA 국가들은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됨.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긴축정책 지속에 따라 -4.0%로 전년(-4.6%) 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다만,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2016년 12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과 화력발전 비용의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궁극적으로는 전 분야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중이 우려

□ 경상수지 적자 추세 지속 전망

-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1차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등으로 적자를 지속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동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되어, 경상수지가 GDP 대비 -3.9%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불량채권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환율 상승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함에 따라 SSA 국가들의 금융안정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 미 연준(FED)은 2016년 12월 13~14일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의 자금이탈 가속화와 미 달러 강세로 이어져 SSA 국가들의 달러 표시 외채부담 가중과 외환보유액 감소를 재촉할 것으로 우려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사우디아라비아

□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경제성장 및 쌍등이 적자 개선 전망

- 산유국들의 산유량 감축 합의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기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소 상승하고 재정·경상수지 적자도 개선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3.6	3.5	1.2	1.1	2.0	1.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2.2	4.0	3.8	2.0	3.7
경상수지/GDP	9.8	-8.3	-6.6	-5.6	-2.6	-0.6

자료: IMF, EIU.

□ 산유국들의 산유량 감축 합의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상승할 전망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90% 및 GDP의 45%가 석유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저유가 지속에 따른 원유수출 및 투자 감소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3%p 하락한 1.2%로 추정됨. 다만 2017년에는 산유량 감축 합의(16.12월)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상승하여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안정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에는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휘발유, 전기, 수도 보조금 삭감으로 4.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7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과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힘입어 2%대로 회귀할 전망이다.
-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사상 최대인 -15.9%를 기록함. 그러나 동 비중은 보조금 감축 등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2016년 -13.0%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에 따라 -9%대 중반으로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 개선 전망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급감으로 상품수지가 대폭 악화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2015년 GDP 대비 -8.3%로 적자 전환하였음. 그러나 향후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 증대, 국부펀드(PIF)의 투자수익 증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 -2%대로 개선될 전망이다.

나. 이 란

□ 4%대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재개, 원유수출 증가 등으로 4%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나, 미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4.3	0.4	4.5	4.6	4.1	5.4
소비자물가상승률	15.6	11.9	7.4	8.6	7.2	9.2
경상수지/GDP	3.8	2.1	4.2	4.5	3.3	4.1

자료: IMF, EIU.

□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미 대선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변수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2012~13년 중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이란 경제는 2013년 8월 핵협상 과정에서 취해진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혜택으로 2014년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조치의 개시로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이 증가하며 4.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와 원유 수출량 증대,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전망 등으로 2017년에도 4%대 중반의 성장이 기대됨. 다만, 미 대선 및 총선에서 대 이란 강경책을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각각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대 이란 제재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음.

□ 유가상승 전망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소폭 개선 예상

- 경제제재 해제 후 원유 수출량 증가와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상승 전망 등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2017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GDP 대비 -1%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상품수입 재개 등으로 7%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이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알화 약세 가능성이 변수임.

□ 원유수출 증가와 유가상승으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3%대 흑자 전망

-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 추세를 유지해 왔음.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개시에 따른 원유 수출량 증가와 유가상승 전망에 힘입어 2017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대 초반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아랍에미리트(UAE)

□ 투자·소비 위축으로 저성장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비석유 부분의 성장 둔화, 투자·소비의 위축으로 저성장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어 3%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3.1	4.0	2.3	2.3	2.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1	3.6	1.6	3.1	3.0
경상수지/GDP	10.0	3.3	1.1	0.6	3.2	4.0

자료: IMF, EIU.

□ 비석유 부문 성장의 상대적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성장 전망

- 2016년에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성장률이 2.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 성장의 상대적 둔화, 보조금 감축 등에 따른 투자·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부동산 경기 과열 진정으로 물가 안정,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임대료 상승 및 전력 보조금 축소 등의 여파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한 4.1%를 기록함. 그러나 2016년에는 부동산 경기 진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세 완화로 3.6%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3%대 초반으로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 국제유가 하락세의 와중에도 복지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지속으로 재정수지는 2015년 적자 전환하였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3.9%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단, 유가상승 전망과 보조금 감축 등 재정개혁 노력에 힘입어 2017년에는 동 비중이 -2% 내외로 개선될 전망이다.

□ 유가상승 전망으로 경상수지 흑자 증대 예상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3.3%로 급속히 낮아졌으며, 2016년에는 1.1%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7년에는 유가상승 전망에 따라 동 비중이 3%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라. 이집트

□ 사회불안의 지속으로 관광 부문 타격, 경제상황 악화

- 쿠데타에 뒤이은 엘시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와 이에 반발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간의 갈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발생 등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며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2.2	4.2	3.8	4.3	4.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10.4	14.0	13.1	17.3	19.2
경상수지/GDP	-0.8	-3.7	-5.8	-7.0	-5.2	-6.3

자료: IMF, EIU.

□ 사회불안의 지속에 따라 경제성장은 4% 이하로 정체될 전망

- 이집트는 El-Sisi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와 이에 반발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간의 갈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발생 등으로 사회불안이 지속되며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2008년 7.2%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인한 Mubarak 대통령의 퇴진, 임시정부 수립, 쿠데타, El-Sisi 정권 등장으로 이어진 혼란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과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4%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재정수지 적자 기조의 지속 전망

-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이집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14.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IMF 구제금융(3년간 120억 달러) 수혜조건인 긴축 재정정책 시행(보조금 감축, 부가세 인상)과 부분적 변동환율제 도입(이집트 파운드화의 추가 평가절하 전망),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등이 더해져 17%를 넘어설 전망이다.
- 재정수지는 El-Sisi 정부의 민심 수습을 위한 보조금 확대 조치로 인해 2016년 GDP 대비 -12.0%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7년에는 보조금 감축, 부가가치세 인상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동 비중이 -9%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인구 증가와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5년 국제기구 등의 원조가 차관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악화가 겹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5.8%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IV. 동유럽⁴⁾·CIS

1. 지역 경제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동유럽	경제성장률	2.8	3.6	3.3	..	3.2	..
	소비자물가상승률	3.8	2.9	3.1	..	4.2	..
	경상수지/GDP	-3.1	-1.9	-2.0	..	-3.0	..
CIS	경제성장률	1.0	-2.8	-0.3	-0.4	1.4	1.1
	소비자물가상승률	8.1	15.5	8.4	8.8	6.3	6.6
	경상수지/GDP	2.2	3.0	1.3	1.3	1.9	2.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EIU, Viewswire, 2016.12.

□ 동유럽은 양호한 성장세 지속, CIS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기반등 전망

- 2017년 동유럽 경제는 경기 부양정책, 소비활성화 등에 힘입어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CIS 지역의 경우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경기 반등이 예상됨.
- 터키와 폴란드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터키는 정정 불안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다소 증가한 상황임.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큰 러시아는 국제유가 회복세 지속으로 인해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전년과 유사한 6%의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유럽 지역의 경우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CIS 지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통화가치가 다소 안정되고 수입물가도 안정되어 전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지역은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CIS 지역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점진적 상승세로 인한 석유·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1.9%로 전망됨.

4) IMF의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등 12개국) 기준

□ 동유럽 경제성장률은 3%대 유지, CIS는 1% 수준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

- 동유럽 지역은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 경제는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다소 안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도 내전의 충격에서 다소 회복되어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높아진 -0.3%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1.4%의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물가상승률은 4%대로 점진적 상승, CIS는 6%대로 하락 전망

- 동유럽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3.1%로, 터키(8.4%)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0% 내외의 낮은 물가를 기록하였음. 2017년에는 국제 유가와 상품 가격이 회복될 경우,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됨.
- CIS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통화가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 하락 등의 요인으로 8.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에너지 생산국의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 6.3%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재정수지는 현 수준 유지, CIS는 소폭 완화 기대

- 동유럽의 2016년 재정수지는 GDP의 -2.3%로 전년(-1.8%) 대비 적자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2.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의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출국들의 재정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2.1%) 대비 확대된 -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유가반등에 따른 에너지 수출국들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동 비율이 -2.7%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경상수지 적자 확대, CIS는 흑자 확대 전망

- 2016년 동유럽 경상수지는 GDP 대비 -2.0%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는 GDP 대비 -5% 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CIS 지역의 경상수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에너지 수출국의 수출 감소에 따라 2016년에는 GDP 대비 1.3%의 흑자로 전년 대비(3.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에너지 수출이 다소 증가하여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국가별 경제전망

가. 터 키

□ 경제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17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3.0%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쿠데타 이후 정정 불안 지속,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리라화 약세 심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다소 증가된 상황임. 또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c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3.0	4.0	3.3	3.0	3.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8.9	7.7	8.4	7.7	8.2	8.2
경상수지/GDP	-5.5	-4.5	-4.4	-4.6	-5.6	-4.9

자료: IMF, EIU.

□ 정정 불안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은 3% 이하로 소폭 둔화 전망

- 2010~13년 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국내수요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2016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의 경제제재, 쿠데타 등의 영향으로 전년(4.0%) 대비 하락한 3.3%로 추정됨.
- 2017년에도 정정 불안 지속으로 인한 투자 감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리라화 가치 하락 및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은 리라화 약세로 8%대의 높은 수준 유지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7.7%) 대비 상승한 8.4%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리라화 약세 지속 및 유가 상승으로 8%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지속되는 IS 테러, 쿠데타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1.9%로 전년(-1.0%)에 비해 적자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2017년도 2016년도와 유사한 -1.6% 수준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전망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전년과 유사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나. 폴란드

□ 정치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3%대 지속 전망

- 반민주 정책들로 인한 정치적 갈등 심화,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민간 소비 활황 지속,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대 경제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3.3	3.7	3.1	2.6	3.4	3.2
소비자물가상승률	0.0	-0.9	-0.6	-0.7	1.1	1.8
경상수지/GDP	-2.0	-0.2	-0.1	-0.5	-1.0	-1.1

자료: IMF, EIU.

□ 정치·금융 리스크로 인해 투자가 저조한 반면, 민간 소비 증가세는 지속

- 2016년 경제성장률은 건설 및 투자 부문의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전년(3.7%) 대비 하락한 3.1%로 추정됨. 지난해 집권한 보수 정권의 반민주적 정책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였고, 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변동성이 확대된 점 등이 투자 감소의 주요 요인임.
- 2017년에도 정치적 리스크 등에 따른 투자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업률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세 지속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3%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물가상승률은 1%대로 회복 전망, 재정수지는 EU 협약 기준 충족 기대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년 연속 경미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유가 및 환율 반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1%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유로화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는 EU 안정성장협약에 의거한 재정적자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충족하는 수준임.

□ 경상수지는 GDP의 -1% 수준으로 적자 확대 예상

-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저유가와 주요 수출국(독일 등)의 경제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5년 -0.2%, 2016년 -0.1% 등 개선 추세를 이어감. 그러나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러시아

□ 경기회복 및 물가안정, 재정수지 적자 개선 전망

-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2017년에는 1.1%의 플러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로 하락하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0.7	-3.7	-0.8	-0.6	1.1	0.9
소비자물가상승률	7.8	15.5	7.2	7.1	5.0	5.4
경상수지/GDP	2.8	5.2	3.0	2.4	3.5	3.8

자료: IMF, EIU.

□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경기회복 전망

- 2016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 저유가 지속과 서방 경제제재의 여파로 -0.8%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따라 1.1%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기대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및 재정수지 적자 개선 전망

- 2016년 물가상승률은 루블화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7.2%로 전망됨. 2017년에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환율 안정 추세가 지속되어,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은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0.8%로 2016년(-3.4%)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 확대

- 2016년에는 국제 저유가와 세계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루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액의 감소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라. 우즈베키스탄

□ 6%대 경제성장률 유지, 고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솜화(UZS)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편, 천연가스 수출규모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4	2015	2016 ^e		2017 ^f	
			IMF	EIU	IMF	EIU
경제성장률	8.1	8.0	6.0	3.5	6.0	4.5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5	8.4	12.0	9.6	20.0
경상수지/GDP	0.7	0.1	0.1	-1.0	0.2	1.1

자료: IMF, EIU.

□ 6% 경제성장률 유지 전망

- 2016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8.0%)대비 감소한 6.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전망

- 솜화(UZS)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8.4%의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공공요금 및 최저임금인상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2017년에도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엄격한 환율관리정책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어해 왔으나, 외환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필요성으로 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급등의 가능성이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 소폭 개선

- 2016년 경상수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로 인해 흑자폭이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